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	이름	부은화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칼리지 스테이션(텍사스)
파견대학	Texas A&M University	파견기간	2012년 8월 ~ 2013년 5월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제가 갔던 학교는 텍사스의 주요 도시에서 차로 2시간에서 멀게는 5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시골이어서 시내버스도 없고 택시도 비싼데다 혼치 않아요. 지하철이나 기차는 물론 없습니다. 대신 교내 셔틀 버스가 웬만한 곳은 다 데려다 줍니다. 그래도 편리한 시간에 아무 때나 친구들과하고 놀러 가고 구경하고 싶다면 차 있는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 다니는 게 좋아요. 저는 일 년이라 차 없이 버텼지만 만약 여기서 오래 있고 싶다면 차는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p> <p>College Station이란 시 자체가 A&M 대학을 대표하고 있어서 가는 곳마다 학교 마크랑 A&M 대학 학생들을 뜻하는 "Aggies"란 문구도 엄청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학교는 역사도 깊고 전쟁 때 군인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라서 그런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기로 특히 유명해요. 캠퍼스 크기는 제가 느끼기에 우리 학교의 한 열 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학교 곳곳에 잔디밭이 있고 다람쥐가 동면할 때 빼고는 맨날 뛰어다니답니다.</p> <p>강의실 규모는 작게는 20명 크게는 3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고, 강당, 세미나 룸, 극장, 체육관 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곳은 바로 Student Recreational Center인데 보통 Rec Center라고 해요. 여긴 gym인데 온갖 종류의 운동은 다 할 수 있고 다양한 운동기구들과 이벤트 및 체육 수업 종류도 많습니다. 운동과는 담 쌓은 저도 렉센터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시설을 무료로 썼다는 사실이 아직도 꿈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시설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한 학기에 300장 까지는 무료로 프린트할 수 있고, 컴퓨터실도 잘 갖추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인터넷 빠른 나라가 없다고는 익히 들었지만 저는 여기서 차이를 거의 못 느낀 것 같아요.</p> <p>학생들이 건물 안팎에 있는 벤치에서, 또는 심지어 그냥 복도</p>

바닥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일반화 되어있고 아무데서나 잠도 잘 잡니다. 도서관도 너무 좋아요. 사람 많은 시간엔 좀 시끄럽기도 하지만 Quiet Area라고 지정돼있는 층이 있는데 거기서 공부하면 좋아요. 스터디룸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쉽게 예약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과제를 하거나 공부하는 데 필요한 기사, 논문, 사설, 등의 자료들이 종류별, 주제별로 너무 많아서 자료 정리하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학생들이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태프들이 도서관에 항상 있습니다. Writing Center에 가도 친절하게 잘 도와줍니다. 아무튼 공부를 위한 것이라면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전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저는 거의 문과 위주의 과목을 들었는데 교수님들이 주로 피피티를 많이 쓰셨지만 오로지 말로만 강의하시는 교수님도 있었습니다. 피피티 파일을 공유하시는 분도 있지만 안 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런 수업 때는 노트북이나 공책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필기 했습니다. Elearning은 우리 학교로 치면 학내 가상대학이랑 비슷한 건데, 수업 계획표, 시험 점수, 출석 현황, 학생 게시판, 온라인 테스트 등 수업에 꼭 필요한 것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office hour와 email 주소를 실러버스에 명시해두시는데 그만큼 이 두 가지는 중요합니다. 여러가지 상황에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내거나 office에 찾아가서 얼굴을 익혀두는 것만으로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Southern Hospitality하면 모두 알 정도로 남부 사람들이 옛날부터 상냥하기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잘 웃어서 저도 덩달아 상냥하게 대하고 별 거 아닌 일에도 웃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미국 애들이 종종 "텍사스에서 제일 좋은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전 그 때마다 꼭 친절하 사람들이 많아서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업 때 이해가 안가는 게 있거나 필기 놓친 게 있으면 클래스메이트나 교수님에게 자주 물어봤었는데 그 때마다 너무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줬어요. 한 친구는 midterm 대비 필기해 놓은 걸 그룹 스터디하는 친구들한테 다 공유해 줘서 덕분에 저도 시험 잘 봤습니다.

저는 캠퍼스 남쪽 끝자락에 있는 기숙사에 살았는데 그 근처에 bar랑 클럽이 많이 있어서 이르면 목요일 밤부터 주말까지 춤판 술판이 벌어져서 좀 시끄럽기도 했지만 다행히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애들이 주중에는 엄청 큰 백팩에 쪼리에 운동복 입고 학교생활 하다가 주말 되면 정말 화려하게 변신한 채로 춤추는 걸 보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연극, 뮤지컬, 영화, 바이블 스터디, 동아리, 파티 등등 수업 외 활동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분위기가 공부도 열심히 하되 놀 땐 확실히 놀자는 것 같아요.

	<p>A&M에서 가장 인기 있는 행사는 바로 미식축구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sport pass를 사서 모든 거의 모든 경기에 참석을 하는데, 경기가 있는 주말의 캠퍼스 풍경이 정말 장관입니다. 이 때만큼 도서관이 조용해지는 날도 없을 거예요. 경기 때 모든 관중들은 A&M을 상징하는 자주색(maroon) 옷이나 모자, 액세서리를 입고 옵니다. 경기 규칙을 잘 몰라도 몇 가지 기본적인 것만 알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특히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응원문화였는데 우리나라 야구 시즌 때 응원문화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단점은 3-4시간 정도 되는 경기 내내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너무 힘들면 중간에 나가도 괜찮아요. 경기가 있는 전날 밤 12시에는 Yell Practice를 하는데 응원 연습하면서 사기를 북돋아주는 행사예요. 가을학기가 끝나기 전에 한 번쯤은 풋볼 경기 보고 오시길 추천합니다.</p>
<p>2012-2학기 수업</p>	<p>1. <u>Composition and Rhetoric (ENGL 104)</u> 영문학 전공 중 필수 기초 과목이라고 해서 들었는데 예상보다 너무 힘들었다. MLA 형식의 글, 즉 미국식 학구적 글쓰기를 배우는 수업이고 글 쓰는 기준이나 형식이 매우 까다롭다. 총 네 번의 writing project가 있었고 in class assignments나 퀴즈가 거의 매일 있었다. 주로 교수님이 피피티 강의를 하시지만 조별 토론, article 분석, 돌아가면서 article에 대한 의견 말하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수님만의 평가 기준도 꽤 까다로워서 한 번 페이퍼를 낼 때 class mate랑 peer review, due date 전에 교수님께 첨삭 받기, 스스로 첨삭 해보는 등 적어도 세 번의 수정 작업이 필요하다. 나 같은 경우는 미국식으로 paper 쓰는 게 생소해서 writing center를 맨날 가고 룸메이트와 친구들한테 계속 물어보고 책도 보면서 5-6번은 수정했다. 운 좋게도 교수님이 한국 분이어서 거의 매번 수업 끝나고 불러서 도와주시고 email로도 자주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결과적으로 나한테 과분한 점수는 받았지만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해 준 수업이었고 미국에서의 두 학기 중 가장 힘든 과목이었다. 교수님마다 수업 계획이나 뉘 센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수강 신청 전에 실러버스를 꼼꼼히 읽어보고 읽다 궁금한 사항은 email 보내거나 교수님께 직접 여쭙보는 것을 추천한다. 교재는 한 권.</p> <p>2. <u>Young Adult Literature (ENGL 361)</u> 어드바이저가 영문과에서 유명한 교수님의 수업이라 재미있을 것 같고 과제도 대부분 온라인이라 어렵지 않을 거라며 추천해줬던 과목인데, 이 사람의 추천을 듣기 전에 먼저 열 다섯 장이나 되는 실러버스를 봐야 했다... 수업 때 discussion 할 책 11권 외에도 교수님이 elearning에 업로드 한 수많은 reading assignments를 수업 전에 읽어가야 했다. 시험 두 번, poetry presentation, 매 주 올려야 했던 독후감 형식의 reading response, 2주에 한 번 조별</p>

과제도 있고 essay 두 번, 마지막으로 peer evaluation을 해야 점수가 나오는데, 이걸 그 동안 올린 조원들의 모든 posting을 읽고 평가하는 것이다. 매번 과제나 시험이 있을 때마다 이 친절한 교수님은 3-4장 되는 실러버스를 따로 나눠주시고 수업 때 다시 설명도 해주셨다. 교수님이 이 수업을 계획하고 자료 찾는 데만 1년이 걸렸다고 하시면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학생들도 잘 따라주고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미국에서 유명한 청소년 문학들, 예를 들면 The Hunger Games, The Giver, Ella Enchanted, 다양한 fairy tales 등등 여기 오지 않았으면 읽거나 배울 기회가 많이 없었던 작품들을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또 좋았던 점은 교수님이 discussion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셨는데 그 때마다 하나의 같은 작품에 대해서 다양하고 기발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었다. 나는 미국 애들처럼 빨리 말 할 자신이 없어서 아쉽게도 발표해본 적은 없었지만 학생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었다. 교재는 소설 열 권.

3. Child Development for Educators (EPSY 320) 우리학교 교직교양 과목 중에 교육심리란 과목이 있는데 그 수업의 영어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여자 교수님이 나이는 많으시지만 가르치는 열정이 대단하시고 언제나 활기찬 분위기로 유쾌하게 수업을 진행하셨다. 수업은 피피티로 진행됐고 시험도 주로 피피티에서 나왔지만 textbook과 함께 공부하면 서술형 문제를 풀 때와 수업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총 세 번의 시험 중 가장 높은 점수의 시험지 두 개가 점수에 반영이 되고, 관찰 보고서 형식의 major project가 다섯 개이다. 이 project들은 장난감 가게도 가야 하고 어린 아이를 세 시간 이상 관찰하며 보고서를 쓰는 등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활동들로 이뤄져 있어서 힘은 좀 들었지만 그만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일주일에 1~2번씩 application assignment를 작성해야 하는데 말 그대로 수업 때 배운 걸 확인하고 적용해보는 활동이고 다른 과제에 비해 매우 수월했다. 강의실에는 여학생이 다수였고 그 중에는 아이 엄마와 임신한 분들도 있어서 수업 때 그들의 실제 경험에서 나온 아동 심리나 행동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어떤 분은 어린 딸을 데려와서 함께 수업을 들었는데 정말 색다르고 보기 좋은 광경이었다. 교재는 한 권.

4. Fundamentals of Human Nutrition (NUTR 202) 음식의 기능, 영양소의 기능, 특징, 음식과 관련된 질병들, 미국인의 식생활, 소화와 흡수, 삶의 주기에 따른 식생활 등 광범위한 범위의 영양학을 기초지식 위주로 배우는 수업이었다. 수업 내용은 정말 흥미로웠고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것도 재미있었지만, 문제는 단어 포함 암기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것인데, 다행히 시험은 다 객관식이고 어렵지 않다. 수업 끝나고 질문할

	<p>때마다 교수님과 조교 두 분 다 너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었다. 다른 과목 따라가느라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과목이다. 교수님이 피피티 파일을 elearning에 올려놓으면 학생들이 프린트 하거나 랩탑에 저장해서 수업 때 가지고 와서 필기하면 된다. 교재 한 권과 iclicker(리모콘)가 필요하다..</p> <p><u>5. Intermediate Yoga (KINE 199)</u> 워낙 요가를 좋아해서 들은 과목인데 이 수업을 듣고 요가가 더 좋아졌다. 아무래도 중급 요가라서 그런지 같이 듣는 학생들 대부분이 어려운 동작도 곧잘 따라 했다. 일기 형식의 yoga journal과, skills test를 마친 뒤에는 self analysis 등의 written assignments가 꽤 여러 번 있었다. Skills Test는 교수님이 직접 평가하기도 하고, 파트너와 서로 평가해줄 때도 있었고, 동영상을 찍어서 평가하기도 했다. Final test 가 학기 말에 한 번 있고 project 하나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 나는 그 중에서 제일 쉬운 웰빙 음식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친구네서 두부 샐러드를 만들었다 (기숙사에서는 요리 하기가 쉽지 않아서...). 온갖 paper와 reading 과제 스트레스에 고통 받던 내게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요가 시간은 정말 꿀 같았다. 매트 는 제공 되는데 개인적으로 쓰고 싶거나 집에서도 요가를 하고 싶다면 하나 사는 것도 좋다. 몸이 너무 뻣뻣하고 요가를 처음 해본 사람이라면 이 수업보다는 Beginning Yoga 수업이 나을 것 같다. 교재는 한 권.</p>
2013-1학기 수업	<p><u>1. American Literature: The Beginning to the Civil War (ENGL 227)</u> 영문 전공 수업 중에 paper가 적은 수업이 흔치 않은데 이 수업은 paper 과제가 딱 하나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신청 했다. 1600년대 미국 초기 문학부터 1800년대 남북전쟁까지의 유명한 작가들과 작품들에 대해 배우는데, 미국문학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미국 문학 상식 위주의 수업이다. 35년을 교직에 몸담고 계신 할아버지 교수님이 오로지 말로만 강의를 하셔서 필기하느라 힘들었다. 그럴 때마다 옆에 앉은 애한테 물어보거나 베끼기도 하고 교수님한테 여쭙보기도 했다. 녹음도 시도해봤는데 별 효과는 없었다. 시험은 총 세 번이고 essay 형식이다. 20개가 넘는 문항에 3-5줄이 되는 답을 쓰려니 한 시간 45분이 턱없이 부족해서 첫 시험에서는 내 대학생활 중 최하 점수를 받았다. 다행히 makeup test에서 조금이나마 만회 할 수 있었고, 첫 시험 때 받은 충격으로 긴장한 덕에 시험 점수는 점점 올랐다. 교재는 anthology 두 권이고 수업 전에 반드시 읽어가야 한다. 예습과 복습을 통한 암기가 습관이 되어야 점수가 잘 나올 것이다.</p> <p><u>2. Literature for Children (ENGL 360)</u> 이 수업도 paper 과제가 하나밖에 없다는 장점이 있어서 신청 했다. 유튜브 영상과 다큐멘터리 및 오디오 자료를 통해 아동의 본성과 성향 등을 파악하고, 서양 이론가들의 아동에</p>

대한 이론들과 미국 초기 아동 문학 작가들에 대해 배웠다. 여러 작품들을 읽으면서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아동에 대한 미국 작가들의 견해를 알 수 있었다. 선착순으로 신청한 학생들에 한해서 발표를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학기말에 페이퍼 하나를 내면 된다. 교재는 없지만 교수님이 elearning에 올린 자료를 수업 전에 반드시 미리 읽고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업 시작 전 10분 동안 작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어린 애들을 타겟으로 한 작품들이다 보니 읽기가 훨씬 수월했고 교훈적인 내용이 많아서 좋았다. 두 번의 시험, 일주일에 두 번 있는 in class paper, 그리고 final paper나 발표 중 하나가 점수에 반영된다. 시험은 객관식과 짧은 서술형 문제가 같이 나오는데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 시험 볼 때 빼고는 완전 재미있는 수업이었다.

3. History of the U.S. (HIST 106) 히스토리 수업은 105와 106 두 가지가 있는데, 105는 미국 초기 역사부터 남북전쟁까지, 106은 남북전쟁 후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배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수님도 수업도 두 학기를 통틀어 최고였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이 교수님이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했다. 교수님이 수업 때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지만, 시험 때마다 150명이 넘는 학생에게 사탕을 나눠주시고 시험 끝나고 나가는 한 명 한 명에게 잘 봤냐고 물어보시는 자상한 면모도 가지셨다. 연세가 꽤 있으셔서 역사의 산 증인으로 열정적인 강의를 하셨다. 베트남 전쟁에 대해 배울 때는 교수님이 군인으로 참전했을 당시의 직접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수업을 하셨는데 정말 인상 깊었다. Textbook 한 권, 인물들에 관한 책 세 권, 영화와 기사 등이 수업자료였다. 열 번의 퀴즈와 세 번의 시험이 있고 페이퍼는 없었다. 퀴즈 볼 때는 친구와 함께 봐도 된다.

4. Introduction to Sociology (SOCI 205) 사회학 기초 수업이다. 교육, 인종, 종교, 스포츠, 집단, 비즈니스 등등 사회적 주제들을 다룬다. Textbook 두 권과 교수님이 따로 올리는 리딩 자료들을 수업 전에 읽어가야 된다. 아무래도 우리가 속한 사회에 대해 배우다 보니 모든 주제에 관심이 갔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부에 흥미도 더해갔다.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사회적 현상들을 꼼꼼히 공부해보니 새롭거나 미처 보지 못했던 점들이 보이는 게 신기했다. 과제나 페이퍼가 없어서 리딩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었다. 대충 알고 있었던 사회학 용어들도 영어단어로 보니 더 잘 이해되기도 했고 재미있었다. 전공이나 학년에 상관없이 누구든 들어도 유익하고 재미있어서 추천해주고 싶은 수업이다. 객관식 시험이 총 네 번 있다.

	<p>5. <u>Beginning Archery (KINE 199)</u> 양궁 기초 수업이다. 첫 학기부터 너무 듣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었고, 봄 학기에도 자리가 빨리 다 차서 못 들을 줄 알았는데 운 좋게도 한 자리가 남아서 신청할 수 있었다. 이렇게 빨리 다 차는 수업은 수강신청 정정 기간에 늘 주시하고 있다가 한 자리라도 빌 때 얼른 신청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시험은 자세 테스트, 비디오 보고 문제 풀기, 단답형 테스트 세 가지이고 수업 때 쓴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가 최종 성적에 반영 된다.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면서 팔에 힘 주는 게 좀 힘들었지만 10점 맞추는 순간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다. 양궁을 배울 기회가 흔치 않은데 배우게 되어서 정말 좋았다.</p>
프로그램 운영	<p>개강 전에는 국제 학생 대상 웰컴 파티랑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학기 중엔 엄청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ISMA (International Student Mentor Association)에 가입하면 Mentor 연결해주는 것도 있고 행사 있을 때마다 이메일을 보내줘서 가고 싶을 때 가면 됩니다. 워낙 프로그램이 많아서 아마 전부 다 참여하긴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꼭 국제 학생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A&M 학생이라면 참여할 수 있는 교내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국제 학생 프로그램 총 담당자는 Ben Petty인데 입학 허가서 받은 파일에 이름하고 연락처 있을 거예요. 국제 학생 분야에서는 베테랑이시고 굉장히 친절하셔서 문의 사항을 이메일로 보내면 신속하게 답변해주십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텍사스 날씨를 Extreme Weather라고 하는 만큼 한 번 제대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정말 무서워요. 저는 짐 크기 때문에 우산을 양산 비슷한 작은 것으로 가져갔다가 정작 비 오는 날엔 우산 부러질까 봐 안 쓴 채로 다니다가 빗물로 거의 샤워했던 적이 있어요. 장우산을 챙기거나 미국 가서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p> <p>텍사스 더위는 정말 색다른 더위예요. 빠르면 4월부터 거의 10월까지 초여름-여름-한여름-늦여름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저는 작년 11월 말에도 반팔에 반바지 입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여름에 습하면서 더운 게 아니라 그냥 엄청 뜨거워요. 햇빛이 강한 날에는 밖에서 오래있지 않아도 살이 금방 타고 피부가 아픈 느낌도 들어요. 그래도 여름엔 실내 어느 곳을 가든 에어컨을 뽕뽕하게 틀어놔서 정말 시원합니다.</p> <p>그렇다고 겨울이 없는 건 아니에요. 12월부터 1월까지 두 달 정도는 우리나라 초겨울 정도 되는데, 중간중간 진짜 추운 날이 합쳐서</p>

	<p>1주일 정도 있어요. 그 때 입을 두꺼운 겉옷 하나 정도는 꼭 챙겨야 해요. 저는 모자, 목도리, 장갑도 가져갔는데 한 삼 일 동안 유용하게 썼습니다. 이곳 저곳 여행 갈 생각이 아니면 텍사스에서는 몇 일을 제외하곤 기모 후드 하나로도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p>
안전	<p>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학교 근처에서 총기사건이 한 번 있었고, 교내에서 성폭행 사건도 한 번 있었습니다. 범죄가 거의 없는 지역이라 현지에 오래 살았던 분들도 좀 의아해 했습니다. 어쨌든 평소에는 안전 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하듯이 자기 안전은 자기가 챙기는 게 최선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돌아다닐 때는 꼭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등의 기본 상식들을 지킨다면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저도 멀쩡하게 잘 지내다 돌아왔으니까요^^</p>
숙소	<p>학교기숙사(<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 숙소(<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p> <p>저는 North side에 있는 Schuhmacher Hall에 살았는데 2인실이고 화장실 하나로 방 두 개가 연결된 구조입니다. 하나의 suite에 총 4명이 사는 방식이에요. 덕분에 친구도 빨리 사귄 수 있었어요. 학기마다 두 번 정도 floor meeting이 있고 같이 피자를 먹거나 보드게임을 하거나 영화도 볼 수 있는 TV room이 있어요. 거의 매일 같은 기숙사 애들끼리 저녁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주말에는 off campus 에서 같이 저녁 먹고 학기 초나 개강 전에는 기숙사 파티도 합니다. 세탁실에는 드럼세탁기랑 드라이어가 있고, 공용 주방에서는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거나 요리하고 설거지도 할 수 있는데 단점은 애들이 잘 안 치워서 좀 더럽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부가 와서 청소를 해줍니다. 위치가 학교 끝자락에 있어서 학교 밖에 먹으러 가거나 놀러 갈 때랑 은행갈 때 편했고, 렉센터가 좀 멀리 있는 것 빼곤 학교 안을 돌아다니는 것도 문제 없었습니다. 가격은 다른 기숙사에 비해 그리 비싸지도, 아주 싸지도 않습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교식당 개별이용 (<input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식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접 요리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p> <p>첫 학기에는 학교 식당보다는 밖에서 식사할 일이 많았고 월마트나 HEB에서 사는 음식이 싸서 밀플랜을 안 썼는데, 갈수록 귀찮아져서 결국 봄 학기에는 밀플랜을 썼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첫 학기에 제일 작은 걸 사서 쓸 걸 하는 후회는 좀 있었습니다. 기숙사에 산다면 한 학기에 dining dollar \$1200 (tax는 추가로 내야 함)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요. 좀</p>

	부담스러우면 \$800짜리를 사서 모자를 때마다 충전해도 돼요. 충전은 학교 웹사이트에서 언제든지 개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음식 종류는 엄청 다양하고 뷔페식 식당도 있어서 맘껏 먹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배 터질 때까지 가져다 먹으면 안돼요 살 찌니까... 건물 곳곳에 식당과 카페가 있어서 편리합니다.
교통	수업 들으러 갈 땐 걸어가거나 셔틀버스를 탔습니다. 학교 밖에 가려면 off campus 셔틀을 타거나 친구한테 부탁해서 차 타고 다녔는데 아무래도 친구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제일 편했어요. 봄방학에 여행 갔을 때는 제 스케줄과 맞는 라이드를 못 구해서 Ground Shuttle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콜벤 같은 걸 타고 30달러 정도에 휴스턴 공항까지 갔습니다. Zimride라는 사이트에서도 저렴하게 라이드를 구할 수 있고 면허가 있으면 렌탈도 할 수 있어요.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대략 200만 원 (왕복)	
Fees	General Deposit \$100	나중에 전액 돌려줍니다. Housing Deposit \$300은 기숙사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끝나고 돌려줍니다.
보험료	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 (International Student Insurance) 학기당 \$369	
숙소	학기당 \$1,894	
식비	학기당 대략 \$1,000 ~ \$1,200	외식비와 방학 동안에 썼던 금액은 포함시키지 않았음.
교통비	\$0	뉴욕 갔을 때 빼곤 교통비 들 일이 없었다.
책값	대략 \$600	첫 학기에는 샀다가 되팔았고 다음 학기에는 대여함.
겨울방학 지출	100만 원	쇼핑 + 생활비 조금
봄방학 여행	120만 원	비행기 표 + 숙식
합계	1,300만 원 이상	학기 중 생활비는 제외함.

5. 출국 전 준비사항

출국 전 짐 쌀 때는 3단짜리 이민가방을 2단 이하로 채우고 나머지는 비워서 가져가는 게 좋다 (미국에서 가져올 게 분명히 생길 것이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는 캐리어랑 백팩 두 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 (짐 크기 제한은 항공사마다 조금씩 달라서 짐 싸기 전에 꼭 확인해봐야 한다). 평소에 자주 입는 옷이나 신발 및 자주 쓰는 물건들은 다 가져가는 게 좋다. 무겁거나 부피가 큰 생필품은 미국 가서 사면 된다. 미국 가서 사길 친구들 생일 선물이나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사 가는 것도 좋다 (이왕이면 한국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기념품들로). 나는 혹시나 다른 공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국사 시험 문제집을 가져갔는데 단 한 장도 안 풀었다. 문학 과목을 신청할 거라면 미리 유명한 작품 몇 가지는 읽어가는 게 좋은데 번역본을 읽어도 무방하다.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때를 대비한 답변 몇 가지를 생각해두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이다. 심심할 때마다 Wikipedia 영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것 저것 찾아보는 걸 추천한다. 미국 드라마나 티비쇼, 영화, 음악들도 많이 접해 가면 애깃거리도 많아질 것이다. 미드는 How I Met Your Mother와 Modern Family를 일반적으로 많이들 보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Arrested Development를 추천한다. 셋 다 재미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출국하기 전 내 목표는 지루했던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신선한 자극을 받고, 영어 실력을 눈에 띄게 향상시키고,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독립심과 책임감을 기르고, 높은 점수에 욕심 내지 않고 즐기면서 공부하고 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늘 그랬듯 내 예상은 빗나갔다. 이미 공부에 흥미와 에너지가 다 떨어진 상태로 하필 할 것도 많은 영문학 수업들을 듣게 되었고, 페이퍼 5장씩 쓸 때마다 거의 토해내듯 썼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기대했던 것만큼 영어가 확확 늘지도 않고 학교 시스템도 잘 몰라서 어리버리 한 게 다시 신입생이 된 것만 같았다. 특히 미국에서의 첫 2주 동안은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비행기가 보일 때마다 울컥하곤 했다.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간 기숙사 파티는 재미 있었다기 보단 정말이지 문화충격이었다. 이 파티에서 느낀 점은 말을 트고 친구를 사귀려면 일단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고생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는데, 운 좋게도 룸메이트와 옆방 친구들을 너무 잘 만난 덕분이었다. 이 친구들과 함께 파티와 각종 행사도 다니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먹으러 다니고 영화 보고 쇼핑하는 등 주말마다 바쁘게 지냈다. Kpop을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좋아하는 친구를 수업 시간에 우연히 만났던 건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다 (이 친구는 조만간 한국에 올 예정이다).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면서 느낀 점과 배운 점이 참 많았다.

겨울방학 한 달 동안은 룸메이트네 집에서 지내면서 쉬고 펄펄 노느라 한 달이 일주일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생전 처음 보는 미국 사람들과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는 것이 어떨 땐 매우 어색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룸메이트네 가족 분위기가 각자의 개인 생활을 존중하는 분위기라서 별 어려움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 내가 가보고 싶은 곳엔 언제든 데려다 주셨고 미국에 왔으면 꼭 먹어야 한다든지 꼭 해봐야 할 것들도 많이 권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셨다. 이 집에 머무는 동안 공원에서 사슴을 마주쳐 보기도 하고, 사격장에서 총도 쏘고, 블랙 프라이데이에 쇼핑도 해보고, 고양이랑 함께 생활해보고, 주먹만한 사탕을 2주 동안 먹어보기도 하는 등 난생 처음 해보는 일들이 많았다. 땡스기빙과 크리스마스 같이 큰 행사를 모두 미국인 가족들과 보냈던 것도 굉장히 색다르고 소중한 경험이었다. 가장 신기했던 경험은 한 달 내내 미국 사람들이랑만 있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혼자 생각할 때도 영어로 하게 됐을 때였다.

봄 학기는 수업도 전보다 훨씬 수월했고 적응도 완전히 된 상태라 편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봄방학 때 나 혼자 뉴욕에 갔다 온 일이었다. 오랜만에 보는 도시 풍경과 말 그대로 온갖 고층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박물관에서 구경하다 보면 하루 반나절이 다 가 있어서 한 시간 한 시간이 아까웠다. 그러나 다시 따뜻한 텍사스로 돌아왔을 때는 왠지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 들었다. 뉴욕에서의 감동을 뒤로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한국에 가는 날까지 채 두 달도 안 남아 있었다. 시험날짜나 과제 제출일은 빨리 지나갔으면 했지만 다신 이런 교환학생이라는 경험을 할 수 없을 거란 생각에 날이 갈수록 아쉬움이 더 커졌던 것 같다. 그 동안 가깝게 지내며 가장 정이 많이 들었던, 늘 화장실을 통해 왔다 갔다 하며 밤늦게 영화도 보고 수다도 떨고 고민도 들어주던 옆방 친구들을 떠나려니 마음이 아팠다. 그래도 내가 눈물을 보일 줄은 몰랐는데, 출국하는 날 아침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나에게 작별인사를 하러 나온 친구들을 봤을 때는 얼싸 안고 영영 울어버렸다. A&M을 다니면서 얻은 가장 큰 행운은 바로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이다. 내가 이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 할 수는 없어도 훗날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있었던 때를 떠올리면 이 사람들과 함께 했던 좋은 추억들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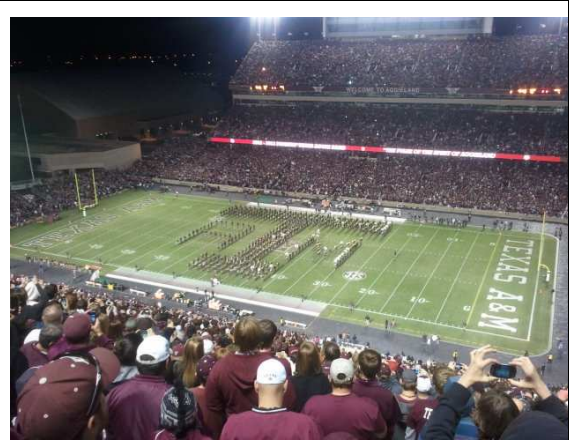
지난 10개월 동안 나한테 이렇게 많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고 예상할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내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될 정도로 변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잊지 못할 시기를 겪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한국에 돌아와서 지내는 요즘에는 문득 내가 꿈을 꾸 걸지도 모른단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난 두 학기가 힘들었던 순간들조차 너무 소중하고 값진 날들이었다. 캠퍼스를 혼자 다니면서 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자유롭게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더 걱정해보고, 주변에 본 받을만한 사람들을 떠올려보고, 어려울 때 주변을 찾아보면 항상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에 세상은 살 만한 곳이란 걸 느끼기도 하고, 한동안 매일 수영을 다니면서 괜히 살이 빠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하는 등 나는 혼자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했다는 방송을 듣는 순간에는 그 동안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주마등처럼 스쳐갔고, 또 그 기억들이 너무 생생해서 눈물까지 났다. 내게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었다는 사실은 공부나 새로운 문화를 체험한 것 훨씬 이상의 의미가 있다. 내 자신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자세히 관찰하고 알아갔던 시기이고, 쓸 데 없는 욕심을 내려놓는 법도 배웠던 시기였다. 내 생각에 교환학생으로 있는 동안 반드시 꼭 해야만 하는 것이나 정해진 규칙은 없는 것 같다. 남들이 해서 나도 하기보다는 내가 가장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것저것 시도해 보는 게 제일 재미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소중한 경험과 추억들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 현재 목표는 순천향에서 남은 두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며 전공 지식을 확실히 쌓고, 내 꿈인 "본받고 싶은 선생님"이 되려면 어떤 인품을 가져야 하는지 계속해서 고민해 볼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인생에서 둘도 없을 소중한 기회를 얻게 해준 우리 순천향 대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여러모로 많이 힘써주신 국제본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아침으로 자주 먹었던 오믈렛.



A&M의 자랑, foot ball!



뉴욕 타임스퀘어.



제일 재미 있었던 지붕에서의 파티.



크리스마스 선물들.



겨울방학 때 산책하러 자주 갔던 예쁜 호수.